

신안 압해동초, 청무화과로 '고장 사랑 농생명 진로 프로젝트'

'신안 농생명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 신안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협력 지원 받아 진행

신안군 압해도 초임에 위치한 압해동초등학교는 지난 14일 목요일 '신안 농생명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압해도 청무화과를 활용한 '고장 사랑꾼 되기 지(식)·역(활)·성(장) 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압해도의 특산물인 청무화과는 보관성이 좋고 맛이 달콤하며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건강 먹거리로 9월이면 압해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한 번 맛보면 다른 무화과를 안 먹게 된다는 청무화과는 압해도 지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높은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체험활동은 압해도 지역 곳곳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달콤한 청무화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청무화과 캐릭터 공모전'을 시작으로 '건강 카나페, 청무화과 효소, 청무화과 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학년군 별로 진행되었고, 특히, 전 교직원과 학부모님,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협력 지원을 받아 알차고 풍성한 프로젝트로 구성원들의 만

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학교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첫 체험활동으로 무화과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학부모님의 자원봉사를 통해 1~4학년 학생들은 무화과의 성장 과정과 효능, 종류, 유통과정까지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무화과 잎을 직접 만져보고 어린 무화과도 살펴본 3학년 심○○ 학생은 '무화과에 대해 알고 나니, 무화과가 더 맛있어 보여요.'라고 했다.

다음 체험으로 1·2학년의 무화과를 활용한 건강 카나페 만들기과 3·4학년의 무화과 효소 담기 시간. 눈과 입이 즐거운 알록달록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카나페 만들기를 하면서 1학년 김○○ 학생은 "우리 집에도 무화과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만 먹긴 아깝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동시에 과학실에서 진행된 '교장선생님과 함께 무화과 건강효소 만들기' 시간에는 저울로 무화과와 설탕의 양을 재고 섞으면서 나

중에 효소가 되면 어떤 맛이 날지, 발효란 무엇인지 등 학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귀한 체험시간이 되었다. 4학년 김○○ 학생은 "우리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라며 기대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1교시부터 신안 농수산 가공센터로 출발한 5·6학년 학생들의 무화과 잼 만들기 활동. 하루 전부터 70kg의 무화과 세척 및 꼭지 따기 등에 손을 넣으신 학부모님과 가공센터 직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은 잼 만들기 본 활동의 모든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으로 가공센터에서는 잼병 소독은 물론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주셨는데, 이 학교 이봉선 교장은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말 벗고 나선 학부모님의 노력 덕분이라며, 학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잼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6학년 김○○ 학생은 "무화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으로 만들어져 상품으로 나오는 과정이 신기했고, 압해도 무화과와 다른 특산물도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체험활동 전 지난 9월 9일에 실시했던 '학생회 주관 청무화과 캐릭터 공모전'



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에 선생님들의 탄성이 터졌고, 아이들이 그린 무화과 홍보 캐릭터는 연말 나눔용 무화과잼과 효소병에 붙여 신안의 청무화과를 홍보하는 데 특목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본 체험활동 담당교사와 학교 구성원들은 행복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추진했던 지역 연계 농생명 진로 체험활동이 주변에 나

눔을 실천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한 압해동초등학교에서는 내년에도 본 체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농촌의 중요성을 알게 미래 농생명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진정한 "우리 마을 사랑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고 추진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담양 남면초, '개성 주악'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담양 남면초등학교(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재)는 담양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역 어르신 모시고 함께 한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통 음식 중의 하나인 '개성 주악'(한과의 일종)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은 김미나 전통 음식연구가를 초청하여 개성 주악의 유래를 배우고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가사문학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학생

들과 함께 주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쌀가루와 멥쌀가루를 반죽하고 꿀을 바르는 과정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모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사문학면 자원봉사자들로서 학교와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되었다.

담양=박종영기자

고흥 백양초, 1박 2일의 예술체험학습



고흥 백양초등학교는 지난 13일~14일, 전교생이 목포 일대로 예술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근현대사와 결합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예술적 심미안과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전교생이 19명인 소규모 학교라 28인승 리무진 전세버스의 편안함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포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을 접하며 새로운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근대 역사관 1,2관을 관람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힘들었던 생활과 그들의 아픔을 간접 경험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고,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는 해설사님의 설명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술의 세계에 심취하였다.

또한, 저녁에 산책하며 걸어간 갖바위와 다

음날의 케이블카 탑승으로 우리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도 확인하였다.

마지막 여정인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심이 많은 공룡의 정보부터 다양한 육상 생물과 동물들의 박제, 신비한 암석과 곤충 등의 전시가 신기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신 휴대폰 촬영을 하며 박물관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1학년 조가윤 학생은 "미술관은 예전에 한번 가보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폼페이로 만든 것이 신기하고 예뻐다. 그중에서 초록색 3개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든다. 저녁에 해솔이랑 쌍둥이 비웃을 입고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았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이랑 새가 신기했으며 티라노사우루스의 발 찾기는 무척 재미있었다. 케이블카 타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얼마 아빠랑 또 오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예술체험으로 간직하고 싶은 미술작품이 생겼으며, 작은 풀 하나의 생명도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슴 가득 채워졌다.

또한,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씩씩하게 살아가야 함을 느꼈기에 백양초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생활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화순 천태초, 과학동아리 1박 2일 캠프 운영

교내에서 과학동아리 학생 17명 대상 진행

화순 천태초등학교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내에서 과학동아리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과학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오후 3시부

터 시작했다.

조를 나누어 알코올 대포와 친환경 물병인 오토를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별과 달 알아보기,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다음날은 교내 주변을 플로깅하고



조별 탄소 제로 밥상을 구성하여 아침 식사를 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